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심사위원 가이드

- (역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통해 단순히 게재의 가부가 아닌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출판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투고된 논문이 최초의 투고본보다 향상된 완성도를 가진 논문으로 게재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심사 시작)** 심사를 진행할 때에 논문의 게재 가부를 먼저 결정하지 말고 게재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 (심사 결과 작성)** 심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 수정 및 보완에 대하여 명령체를 쓰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부탁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실험 세트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 실험 세트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심사 기간)** 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면 의뢰를 받는 즉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심사 진행)** 맞춤법, 그림 오류, 영어 문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며, 재실험, 이론의 재검증 및 재분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은 논문의 구조 혹은 논리상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심사 자세)** 해당 논문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본인의 투고 논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본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 수준)** 독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투고된 논문의 수준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기준에 맞추지 않도록 한다.
예) 석사 학위를 시작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논문도 필요하다.
- (실험 파형)** 모델링 및 이론이 충실할 경우, 혹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델링을 사용할 경우에 실험 파형이 논문 게재에 있어서 필수적이 아닐 수도 있다.
예) 논문의 주제가 전력전자 시스템의 안정도 증명에 관한 경우, 실험이 어려운 전력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경우, 등등
- (산업기술 논문)** 산업기술 논문으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 학술적인 완성도보다 해당 기술의 구현 또는 응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논문이 산업기술로써 제품에 적용된 기술인가?
 - ② 본 논문이 산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은? (산업기술의 중요도)
 - ③ 기존 산업기술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제시)
 - ④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는가? (실험결과의 제시 여부)
 - ⑤ 참고문헌이 적절하게 인용되어 있는가?
- (Letter 논문)** 정규논문과는 달리 아이디어의 독창성 또는 기술 이슈의 최신성(Survey 논문의 경우에 한함)을 위주로 평가하며, Letter 논문의 지면 제한을 고려하여 다양한 검증 부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검증이 포함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1심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